

2023. 8. 23.(수) 조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3년 8월 22일 오전 11:15 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 부서: 세종문화회관 커뮤니케이션팀

| | | |
|----------------|--|-------------|
| 커뮤니케이션팀 팀장 | 김화영 | 02-399-1140 |
| 커뮤니케이션팀 담당 | 신대섭 | 02-399-1145 |
| 공연제작1팀 담당 | 김보름 | 02-399-1728 |
| 관련 누리집 (메뉴) | www.webhard.co.kr (ID: sjhongbo PW: 12345) | |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8쪽

세종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9월 해설이 있는 '스페셜 발레 갈라'

- 대한민국 발레 명가(名家) 유니버설발레단이 선사하는 화려한 발레 갈라
- 문훈숙 단장의 친절한 해설이 더해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발레 무대
- 백조의 호수 등 유명 발레 작품의 하이라이트를 한데 모은 풍성한 프로그램
- 9.12.(화) 15시·19시30분 2차례 공연 선보여, 8.27.(일)까지 시민 누구나 예매 가능

- 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은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천원의 행복>을 통해 오는 9월 12일(화) 세종대극장에서 '해설이 있는 스페셜 발레 갈라 with 문훈숙' 공연을 오후 3시, 오후 7시 30분 두 차례 선보인다.
- 그 중 첫 번째 오후 3시 공연은 보육어린이,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자립준비 청년,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 탈북자,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문화예술을 즐기기 어려운 여건의 '문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동행석'으로 전석 운영하여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프로젝트로서 같이 하는 가치, 함께하는 기쁨을 실현한다.

- 두 번째 공연은 오후 7시 30분 진행되며 일반 시민 누구나 관람 신청이 가능하다. 18일부터 접수를 받은 9월 천원의 행복 ‘해설이 있는 스페셜 발레 갈라’는 27일(일)까지 천원의 행복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관람 신청 안내 또한 천원의 행복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happy1000.sejongpac.or.kr)

□ 9월 12일(화) 세종대극장에서 진행되는 9월 천원의 행복 <해설이 있는 ‘스페셜 발레 갈라’ with 문훈숙> 공연은 3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발레단인 유니버설발레단의 수준 높은 무대로 꾸며진다. 또한 활발한 발레 강연과 주니어 육성 프로그램으로 ‘발레 대중화’에 힘쓰는 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 단장의 친근한 해설이 곁들여진다.

- 해설자로 나선 문훈숙 단장은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발레 공연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무심코 넘길 수 있는 몸짓에도 한 번 더 시선이 머무를 수 있도록 맛깔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 특히 본 무대에는 지난 6월 ‘무용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브누아 드 라 당스(Benois de la Danse)’의 최고 여성무용수상을 수상하며 전세계의 주목을 받은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강미선부터 이현준, 이동탁, 홍향기, 강민우, 손유희 등 최고의 기량을 뽐내는 수석무용수들이 총출동하여 말 그대로 스페셜한 ‘발레 갈라’를 펼친다.

□ 9월 공연은 특히 대중에게 널리 사랑받는 유명 발레 작품들을 한데 모은 특별한 프로그램 구성이 눈길을 끈다. 이번 갈라 프로그램에는 차이콥스키의 음악과 함께 섬세한 동작이 흐르는 ‘백조의 호수’, 모두가 사랑하는 ‘호두까기 인형’부터 우아함과 동화적 감성의 집합체 ‘잠

자는 숲속의 미녀’ 등 발레하면 떠오르는 대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장난감 가게 인형들의 아기자기한 움직임이 잔망스러운 ‘인형 요정’, 화려한 도약과 어려운 테크닉으로 무용수의 뛰어난 기량을 엿볼 수 있는 ‘해적’, 그리고 스페인의 열정과 정취가 넘쳐나는 ‘돈키호테’까지 유명 작품 모두를 한자리에서 만난다. 아울러 친숙한 전래동화와 클래식 발레의 절묘한 조화로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초청받고 있는 유니버설발레단만의 대표 레퍼토리 ‘심청’을 선보일 예정이다.

- 〈천원의 행복〉 9월 공연 ‘해설이 있는 스페셜 발레 갈라 with 문훈숙’은 천원의 행복 홈페이지에서 8월 27일(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예매가 가능하며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전석 1,000원이다. (happy1000.sejongpac.or.kr)

- 2007년 첫 선을 보인 〈천원의 행복〉은 지금까지 36만 명이 넘는 시민이 관람한 세종문화회관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문화 나눔 사업이다. 그간 작지만 큰 ‘천원’이라는 파격적인 티켓 가격을 기반으로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공연장 문턱을 낮춘 장수 프로그램이다.

 - 특히, 올 2023년 준비된 〈천원의 행복〉 공연은 더 많은 시민들이 직접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대극장 공연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클래식, 전통, 대중, 무용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공연을 두루두루 만나볼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래밍을 자랑한다.

- 붙임 1. 천원의 행복 9월 공연 포스터
2. 프로그램 소개
3. 출연진 소개

[붙임 1] 천원의 행복 9월 포스터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9월 천원의 행복

해설이 있는
'스페셜 발레 갈라'
with 문훈숙

Shim Chung

The Fairy Doll

Don Quixote

The Nutcracker

Swan Lake

Le Corsaire

Sleeping Beauty

2023.9.12. 화 15:00/19:30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출연: 문훈숙, 문훈숙, 출연: 유나바섬발레단
관람료: 전석 1,000원
관람신청: 행복동행의 달세극장 신청 happy1000.sejongpac.or.kr
공연문의: 세종문화회관 02-396-1000
관람연령: 7세(2016년생) 이상

세종

[붙임 2] 프로그램 소개

〈백조의 호수〉 中

1막 ‘백조 파드되 & 백조들의 춤’

〈잠자는 숲속의 미녀〉 中

‘그랑 파드되’

〈인형요정〉 中

‘파드 트루아’

〈해적〉 中

‘파드 트루아’

〈심청〉 中

‘문라이트 파드되’

〈호두까기 인형〉 中

1막 ‘스노우 파드되’

2막 ‘그랑 파드되’

〈돈키호테〉 中

‘거리의 무희 & 에스파다’

3막 ‘결혼식 파드되’

[붙임 3] 출연진 소개

해설 문훈숙 | 유니버설발레단 단장 겸 효정한국문화재단 이사장



미국 워싱턴 출생으로 선화예술학교, 영국 로열발레학교, 모나코 왕립발레학교를 거쳐 미국 워싱턴 발레단에서 활동 후 1984년 국내 첫 민간 발레단인 유니버설발레단이 창단되면서 창단 멤버이자 프리마 발레리나로서 한국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989년 동양인 최초로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에 초청되어 키로프발레단의 <지젤> 객원 주역으로 공연, 일곱 차례의 커튼콜을 받으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다. 이후에도 재초청을 받아 <돈키호테>(1992), <백조의 호수>(1995)에 공연하여 한국 발레의 위상을 발레의 본 고장에 각인시켰다.

2002년부터 예술경영인으로서 한국 발레 최초로 실시한 ‘공연 전 발레 감상법 해설,’ ‘공연 중 실시간 자막 제공’은 지금도 일반 관객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으며, ‘발레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I am because We are’를 모토로 삼아, 2015년 유니버설발레단 주니어컴퍼니를 통해 전액 장학금으로 발레 영재들을 발굴 및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훈숙 단장은 2009년 한국발레협회 대상, 2010년 대한민국정부 화관문화훈장, 2011년 경남문화재단 경남학술상, 2012년 국제공연예술협회(ISPA) ISPA AWARD-최고 경영자상과 한국발레협회 발레 CEO상,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여성문화인상과 한국공연예술경영인협회 공연예술 경영상-대상,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문화상, 2018년 서울특별시 문화상, 2019년 한국무용협회 예술대상을 수상했다.

현재 (재)효정한국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유니버설발레단 뿐만 아니라 유니버설아트센터, 유니버설발레 아카데미, 리틀엔젤스예술단, 유니버설발레단 주니어컴퍼니, 줄리아발레아카데미를 경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선학학원 부이사장, 사회복지기관인 자원봉사 애원의 이사장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출연 유니버설발레단 | 39년의 헤리티지를 품은 대한민국 대표 발레 명가(名家)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 정통성을 이어받아 한국 발레의 수준을 높이다!

유니버설발레단이 설립된 1984년에는 국가가 설립한 국립발레단(1962년 창단)과 광주시에서 설립한 광주시립무용단(1976년 창단)만이 있었다. 설립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에 남자 무용수가 부족해 인쇄소 직원이나 연극인을 무대에 세울 만큼 열악했으나, 각고의 노력 끝에 1992년 마린스키발레단의 예술감독이었던 올레그 비노그라도프를 초빙하는데 성공한다. 이후 <백조의 호수>를 시작으로 유니버설발레단은 국공립 단체가 생각지 못했던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의 전통을 최초로 정식 수입해 국내에 정착시켰다.

유니버설발레단은 1985년부터 한국 발레단 최초로 해외 투어를 시작해 ‘발레의 변방’이나 다름 없었던 한국 발레를 세계 무대에 소개해왔다. 그 결과 2001년 국내 최초로 워싱턴 케네디센터, 뉴욕 링컨센터, LA뮤직센터에서 공연해 뉴욕타임스의 호평을 받았다. 2011년 부터는 ‘유니버설발레단 월드투어’를 통해서 본격적인 ‘발레 한류’를 개척하였다. 창작발레 <심청>은 발레의 본고장 러시아와 프랑스에 공식 초청되어 ‘한국 발레의 역수출’이라는 성과를 낳았으며, 이밖에도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을 넘어서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와 남아공, 오만 등 중동과 아프리카 대륙까지 전세계 주요국에 초청받아 ‘한국 발레’의 입지를 탄탄히 정착시키고 있다.

세계적인 발레 스타의 산실, 유니버설발레단

유니버설발레단은 모체인 선화예술학교와 직영 교육기관인 유니버설발레아카데미, 줄리아발레아카데미, 워싱턴 키로프 발레아카데미(Kirov Academy of Ballet, Washington D.C.)를 설립하여 세계적인 무용수들을 꾸준히 배출해 왔다. 문훈숙 단장을 비롯해 국립발레단 강수진 단장, 서울발레시어터 김인희 전 단장, 재독 안무가 허용순, 아메리칸 발레시어터 수석무용수 서희,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수석무용수 강효정과 에반 맥키, 볼쇼이발레단 수석무용수 시몬 चु진, 보스턴발레단 수석무용수 한서혜, 독일 드레스덴 쟈퍼오퍼발레단 수석무용수 이상은, 핀란드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하은지, 네덜란드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최영규, 전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강예나, 황혜민, 엄재용과 현역 수석무용수 강미선, 이현준, 이동탁, 홍향기 등이 그들이다.

세계 거장 안무가들이 인정한 유니버설발레단

2000년대 들어 유니버설발레단은 한국 관객에게 보다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고, 해외에 높은 기량의 국내 무용수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유럽의 드라마 발레부터 컨템포러리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소개해왔다. 그 결과 존 크랑코, 케네스 맥밀란, 지리 킬리안, 나초 두아토, 윌리엄 포사이드, 한스 반 마넨, 오하드 나하린 등 해외 거장들로부터 국내 최초로 공연권을 허가받아 한국 발레의 레퍼토리를 풍성하게 했음은 물론이거니와, 유럽에 한국 발레와 한국 무용수들의 예술적 우수함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친절한 발레단으로!

유니버설발레단은 관객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고 있다. 2008년부터 한국 발레 최초로 실시한 ‘공연 전 해설’, ‘실시간 자막제공’과 찾아가는 발레특강인 ‘문훈숙의 발레이야기’는 기업과 기관 및 일반 관객들까지 크게 환영받고 있다. 창단 37년을 맞은 유니버설발레단은 그동안 받아온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객석기부와 문화나눔 및 찾아가는 발레교실 등 사회공헌사업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